

제목: 아버지께로 감이라 **Go to my Father's House**

본문, 요한복음 **16:16-22** 절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A little while, and you will no longer see Me; and again a little while, and you will see Me."**

17.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Some of His disciples then said to one another, "What is this thing He is telling us, 'A little while, and you will not see Me; and again a little while, and you will see Me'; and, 'because I go to the Father'?"**

18.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So they were saying, "What is this that He says, 'A little while'? We do not know what He is talking about."**

19.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Jesus knew that they wished to question Him, and He said to them, "Are you deliberating together about this, that I said, 'A little while, and you will not see Me, and again a little while, and you will see Me'?"**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Truly, truly, I say to you, that you will weep and lament, but the world will rejoice; you will grieve, but your grief will be turned into joy.**

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Whenever a woman is in labor she has pain, because her hour has come; but when she gives birth to the child, she no longer remembers the anguish because of the joy that a child has been born into the world.**

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Therefore you too have grief now; but I will see you again, and your heart will rejoice, and no one will take your joy away from you.**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미리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본래 계시던 그곳 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곳이 우리 제자들이 가야 할 곳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본문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여 올라 가시는 곳을 미리 알려 주는 이유는 후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1 절).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큰 환란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교인들이 출회를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2 절). 그 이유는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3 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때를 당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도록 하기 때문인데 처음부터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뿐 더러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지만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곧 유월절이 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4 절)

예수님께서 곧 이 일이 오는데 지금도 제자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5 절)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므로 제자들이 불안해 하면서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6 절). 지극히 그 당시의 제자들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도 해야 하는 이유는 곧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혼돈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지금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7 절).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8 절). 이 세가지가 모두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9 절).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의는 곧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는 자는 지옥으로 구별되는 기준이 ‘의’라는 것입니다. 즉 의는 곧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10 절).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멸망하거나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11 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하지 않으며(12 절),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데 그 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13 절). 그 때에 성령께서 전하는 말을 통하여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알리게 되어 영광이 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14 절). 즉 성령께서 전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을 성령께서 전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15 절)

본문 이전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령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제자들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삼 년 동안 생활했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 곧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서는 본래 계셨던 곳 즉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16-18 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어 보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말하는 것을 아셨습니다(19 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곧 “제자들이 곱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신 내용은 곧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곧 일어 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이 세상 즉 악한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이긴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단이 여자가 낳은 아이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이미 예견하신 내용이었습니다(창세기 3:15 절 “내가 너(뱀,마귀,사단)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뱀,마귀,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신 내용입니다(20 절). 예수님께서서 여자들의 해산할 때의 고통과 그 해산 후에 기쁨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21 절).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근심하게 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22 절).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 즉 영원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영생의 길로 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16 절)

1.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7 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2.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4 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12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 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2-3 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20 절)

1.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성도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20 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 예수님께서서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32 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14 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예수님) 안에서 우리가(성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셋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22 절)

1.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19 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14:20 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3.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4 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